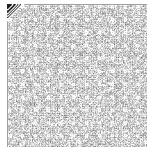


정석 예로니모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 주일학교의 추억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로버트 풀검의 이 책이 유명해진 뒤, “~에서 다 배웠다”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저도 하나 더하고 싶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다.”

“신부님, 제가 봉사할 일이 있을까요?” 1984년 1월 초 주일미사 뒤 처음 뵙는 보좌신부님께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그 무렵 부모님은 시골 논밭을 팔아 잠실에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셨습니다. 기숙사와 하숙집과 자취방을 떠돌던 생활을 끝내고 정착할 ‘내 집’과 ‘우리 성당’이 생겨서였을까요? 그렇게 봉사를 자청했고 김덕근 요셉 신부님은 반갑게 웃으시며 목요일 저녁 사제관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런 연유로 대학 4학년 청년 예로니모는 얼떨결에 잠실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대학 새내기 후배들, 청년 단체 활동 뒤 교사회로 옮겨온 선배들과 함께 명동성당 교사학교를 수료하고 고2 담임을 맡았습니다. 생전 처음 맡은 선생 역할이 어색하고 부담도 되었지만, 동생 같은 고2 학생들과 청년예수 공부도 하고 주일학교를 마치면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함께 축구도 했습니다. 커다란 들통에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일 때 무척 행복했습니다.

800명 가까운 학생들을 두 번에 나누어 여름캠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조담임 교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고, 각 조 선배들은 엄마와 아빠, 그 아래로는 형제자매가 되어 한 가족처럼 캠프 생활을 했습니다. 늘 받기만 하다가 주는 입장이 된 청년 교사들도, 집과 학교에서 받아보지 못한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은 중고교 학생들도 많은 걸 배우고 느끼며 쑥쑥 자랐습니다. 주일학교는 사람을 키우는 또 하나의 가정이었습니다.

교사를 시작하던 무렵 초등부 후보 <작은마음>의 만화가 모집 공고를 보고 응모해 1984년부터 6년간 ‘만화 우리알’을 그렸습니다. 잠실성당 중고등부 교사에 더해 교사연합회 편집부 활동까지 한 덕에 교육부 후배 헬레나를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잠실 교사 OB 모임 때 자녀들도 함께했던 덕일까요? 고등학생이던 큰아들 프란치스코가 주일학교에 관심을 갖더니, 대학 입학 후 지금까지 10년째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오래...

네 아이를 키우고, 10년 넘게 주말농장을 하며,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깨닫게 됩니다. ‘아빠’와 ‘농부’와 ‘선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을 키운다는 것,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란다는 것, 제가 할 일은 그저 바위처럼 믿고 격려와 사랑을 듬뿍 주는 것뿐이라는 걸. 생명을 키우는 지혜를 제게 처음 가르쳐준 게 주일학교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교사 첫해 만났던 고2 제자 최분도는 베트남 종합물류회사를 창업한 글로벌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경영 노하우를 대부분 주일학교에서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더없이 소중한 주일학교의 추억을 더 많은 청소년, 청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라! 주일학교로.

를 이끄는  
성경구절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었다

장혜란 마르타  
제기동성당

인한 16:20